

精神障碍者인간자가늘고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신감정을 위해 의외되는게 보통이다. 또한 이들은 군대및노동자와 같은 단체에서 각종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인격장애의 원인으로서는 전에는 타고난 기질(유전)이나체질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정신장애를 가볍게 보려 하고 가족들은 다소 과장되게 말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의 말만 믿고서는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위해서 환자나 가족 이외에도 사업주, 법원, 학교 및 병원 등으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두부의상 등 중추

인격장애

성격장애患者중심으로



高京鳳
 (延世醫大) 精神科 교수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한人間으로서 必要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뜻이 있다는 關係維持 매우重要

자기보호위한 방어, 非效果的이라도 지지적 精神療法강화시켜줘야

患者의 특성이 스트레스반응에 응동성없이 적어 못하고 麻藥등 습관성藥物 남용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격이 개인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지각, 사고 및 행동등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인격장애는 이런 인격이 융통성이 없고 적응력을 상실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 곤란해진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다른 정신장애에서 볼수있는 일시적 인격기능의 장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인격장애자들은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신경증(노이로제) 환자처럼 스스로 정신과적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이들이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치료자 자신도 자연히 이들을 기피하고 인식하지 않으려는 데도 기인된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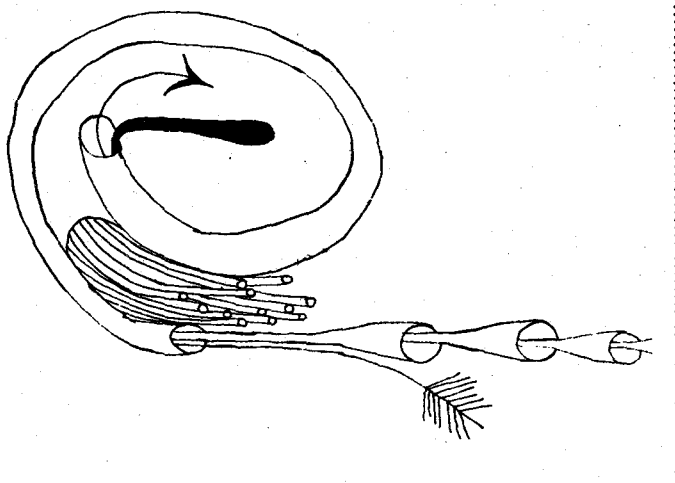
인격장애는 전체적인 정신장애 범주에서 본다면 정신병과 신경증의 중간쯤에 해당된다. 인격장애가 이들과 다른것은 정신병에서 흔히 보이는 사고, 감정 및 행동에 있어서 퇴행현상이 별로 없고 신경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정된 방어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인격장애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융통성이 없고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성격증보다 양상이 더 심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셋째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다. 넷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인격장애자들은 특히 대인관계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같이 살거나 살지 않던 간에 관계없이 주위사람들과의 고통스러운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혹자는 신경증이 본능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인격장애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즉 남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 보지 못해 계속 남을 화나게 하거나 「못돼먹었다」는 욕을 들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가 곤란하다. 또한 인격장애자들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인격장애의 양상은 이미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성인에 이르러서도 계속되는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것은 전체인구의 약 10%이상에서 분포되어 있는것으로 보고 있고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격장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정신병적 양상과 비슷한 망상형, 분열형, 분열유형(Schizotypal), 인격장애, 둘째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흔히 괴짜로 보이는 히스테리성, 자기애적(自己愛的), 반사회적 및 경계선형 인격장애, 셋째 불안 및 두려움을 나타내는 회피적, 의존적, 강박적 및 수동공격적 인격장애 등이 있다. 이중에서 둘째 그룹의 인격장애자들은 법원, 교도소 및 특수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 부터 정



마찬가지로 이들의 병적 행동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 높다.

인격장애는 인격발달이 더이상 안되고 중지하였으나 잘못됨으로써 충동을 억압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해 제대로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자라는 동안에 동일시할 대상이 없어 자신이 나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인격발달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일관성 없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머니 없이 자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격발달이 제약을받거나 나중에 인격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인격장애자들은 자신의 문제

신경계의 장애로 인해서도 인격장애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신체적 및 신경학적 평가를 통해 기질적 이상 유무를 가려 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과거력 및 사회력을 통해서 행동장애의 반복여부를 알아내어 초기 정신병과도 감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자에서 마약 등의 습관성 약물남용이 흔하고 때때로 알콜의존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치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나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심이 많은 망상형 인격장애자에서 보이는 고립이면에는 의존욕구가 깔려 있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분열형 인격장애자의 무던 감정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자기애(自己愛), 의존 및 비타협적 태도 등이 숨어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이에 대처토록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치료는 이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어가 비록 비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강화시켜 주는 지지적 정신요법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신경증 환자처럼 이들의 방어기전을 직접 건드릴 때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 의사-환자의 관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발달과정중 모성결핍 등의 경험이 있어 남로부터 배척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경멸조로 대하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치료자를 화나게 하더라도 이들을 무시하거나 멀리 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 뜻이 있음을 보여 주어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비록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의존적이라서 성가실 때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을 둘 필요는 있으나 결코 미워한다면가 벌을 준다는 느낌은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개발!

우리 技術, 우리 原料로 만든 B型 肝炎 백신

헤파박스[®]-B

주식회사 녹십자

한 우물을 파는 精誠이 技術의 深度를 더 해 갑니다.

본사 : 584-0131 (대) • 판매 : 서울 925-0131, 부산 83-8977, 대구 352-4971, 대전 623-0131, 광주 56-5781, 전주 3-7310, 마산 2-4991, 원주 42-2759, 청주 52-8661, 인천 73-0132